

제10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한글 백일장

⑧ ③ A

학교	한글	영어	성명	한글	영문	생년월일	1995년 10월 8일
	사마르칸트 '외국어' 대학 Samarkand State Institute of F.L.			라히모브 베호르드	Rabbimov Bekhod	학년	4

"우리"는 2 줄자로 구성된 언어이지만
 우리"를 가지고 있다. 물론, 사람
 이다. 한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기 아
 생각한다. 또, 다른 사랑은 자기 가 살
 가는 사회를 "우리"라고 말할 수 도
 있다. 나도 마찬가지로 나만의 의견을
 가지고 있다. 그래서 오늘 나만의 이야
 기를 전달하고자 한다.

한겨울 오는 날 새벽이다. 밤새도록
 내린 눈은 벌써 그쳐 있었다. 우리 집
 은 학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. 그래서
 학교 가기 위해서 집에서 일찍 나와야
 된다. 그런데 그 날 날씨가 추운데다가
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이상한 기분이
 있다. 자기 방에만 있고 하루 종일 눈이
 만들어 간 신혜로운 장면을 계속 바라
 보고 싶단 말이다. 눈으로 덮인 땅은
 신부들 북러워 그의 눈백의 웨딩 드레
 스를 입은 것 같다. 하지만 나는 알랑
 서계 물린 대로 일어나 줄린 채 베스
 정류장까지 갔다. 한 바람에 운몽이 북
 들부들 떨어지며 마음마저 어러블는 것
 같았다. 드디어 배스가 왔다. 배스 안에

제10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

영문 영문 한글		영문 영문 한글 학번				한글 학번		마 영문		영문 학번			

는 나와 운전기 사님 뺑에 아무도 없었다.
 그래서 너무 조용했다. 맨 끝 자리에
 앉은 나는 창문으로 버스 바퀴가 만들
 어가는 눈길 줄을 쳐다보고 있었다. 문
 득 머릿속에서 "우리라는 단어가 무는
 뜻일까"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.
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너무
 가난했다. 그래서 생활하면서 견디어야 하
 는 힘든 날이 많았다. 아버지는 적성에
 맞는 일을 못 찾고 계셨다. 어머니는 중
 학교 선생님이시고 밤늦은 원근이 한 달
 생활하는 데에 모자라는 경우도 있었다.
 그래서 부모님은 돈을 아끼고 더 아껴
 쓰시곤 했다. 하지만 둘다 깨끗하고 밝
 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셨다. 내
 친구들은 자국 새 옷을 입고 학교에
 다녔다. 그러나 나는 출고 더운 날씨에
 도 불구하고 옷은 한두 개 밖에 없었
 다. 나는 친구들을 부러워하고 마음이 아
 뻤다. 그래서 부모님한테 자국 눈물의
 항의를 했다. 지금의 의식이 없는 그때
 의 나는 지나치게 이기적인 것 같다.
 왜냐하면 "우리" 아니라 "나만"을 생
 각했기 때문이다.
 행편이 어러워서 항상 거절을 당하고

제10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

한글 영문	성명		학년	생년월일	년	월	일
한글 영문	성명		학년	생년월일	년	월	일

"엄마 미안해. 이번이 아니로 다음번에
 꼭 사 줄게" 라는 말만 들었다. 네 마
 음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다 어쨌든
 는 겠다. 그래서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
 다.
 그러던 중, 아버지는 눈물로 가득 차
 마음으로 자기 가족을 버리고 외국에
 가셨다. 몇달 후 돈을 벌고 우리한테
 보내기 시작하셨다. 나는 "엄마가 이
 돈을 받고 나한테 다양한 것들 사 줄
 거야" 라는 생각을 하고 마음속으로 기
 뻘뻘했다. 아쉽지만 이번에도 거절을 당할
 줄 몰랐다. 그 거절 이유를 하나 뿐이
 었다. 두방을 둘러싸여 있는 백백에 있
 는 우리 집을 다시 짓기 위해서였다.
 아버지는 외국에서 낫선 환경에서 고생
 하시고 어머니는 여기서 혼자 우리도
 챙기고 집 공사 일도 맡으시게 되었다.
 어머니는 늘 뭔가 필요하면 꼭 남자답
 게 두려움이 하셨다.
 하리만 아버지는 건강 나빠져서 귀국
 하시게 되었다. 짙은 완성되었지만 모아
 둔 돈이 없었다. 어머니 부담이 두배로
 많아졌다. 왜냐하면 한꺼번에 남편과 자
 식들도 챙기고 다른 일도 하셔야 되기

제10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

한글 학교	한글 명	한글 성명	한글 학년	한글 생년월일	한글 년월일

100

200

300

400

500

때문이었다. 나는 TV에서 방송된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에 관심이 생겼다. 그리고 이학원을 다니고 싶었다. 하지만 부모님의 여유 돈이 없어서 만일 내 생각을 알려줘도 또 거절을 당할까봐 포기하기로 했다. 내 마음을 알게 된 어머니는 쿨쿨 물고 "엄마가 그동안 잘 해 주지 못했지? 정말 미안해. 하지 말 니 미래를 위해서 엄마가 묵숨까지 바칠 수 있어. 이것은 너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야. 아빠, 엄마가 늙을수록 형이 없어진거야. 너는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 미래를 예쁘게 만들어야 돼. 알았지?" 라고 할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서 수업료를 내었다.

나는 얼굴이 빨아진 채 내 팔뚝을 알게 되었다. 이 세상은 4만으로 아니라 우리로 완성된 곳이 될 것이다. 그리고 어머니는 나보고 "너는 우리 장관이야. 앞으로 장관이 될거야" 라고 하신다.

그래서 나는 결정을 내렸다. 한국을 수학 가서 앞으로 부모님이 원하시는 장관이 되도록 하겠다.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할 것이다.